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평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o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여호 25,9ㄱ,10-12

[화답송] 시편 34(33),2-3.4-5.6-7(◎9ㄱ)



(후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너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제 2 독서] 2 코린 5,17-21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니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복음환호송] 루카 15,18 참조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복 음] 루카 15,1-3.11ㄴ-32

- 입당성가 [117] 지극한 근심에
- 봉헌성가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 성체성가 [499] 만찬의 신비
- 파견성가 [490] 십자가에 가까이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전 마치 마가렛 이 영우, 이 태묘 이 정진 안토니오 최 순자 막달레나 김 학순 김 용기 요셉 이 종환 토마스아퀴나스 유 정걸 (영원을 위하여) 안 부자 소피아 배 계수 박 난성 요셉프란치스코 이 덕희 토마 한 정수 비오	가족 이 상홍 스테파노 장 혜운 크리스티나 장 수림 에피파니아 박 해화 도미니카 이 경자 올리안나 이 은경 헬렌 유 미경 크리스티나 배 옥희 안 선정 마리안나 양 미숙 마리아 이 창석 베드로 한 데레사, 안나
생미사	봉헌
김 정숙 프란치스카 김 영희 (감사) 김 학순 가족 위해 이 영옥 필로메나 임 창호 바오로 권 민호 바오로	이영애 레지나 김영희 박 해화 도미니카 유 대건 미카엘 정 동주 유스토 청년 전례부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3월27일	정동주 유스토	김은아 미카엘라	권민호 바오로	김은아 미카엘라	양미숙 마리아	한서희 데레사	김승현 마리아
4월3일	장혜운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고은경 모니카	고은경 모니카	김종선 비비안나	한서희 데레사	정은철 프란치스코

- 2022 사순시기 '공동체 공동 보속' -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매주 공동체 한 단 체씩 주관하여 대성당에서 바칩니다.
 - 3. 4 : 사목협의회 3. 11 : 청년회 3. 18 : 연령회
 - 3. 25 : 성소후원회 (양업회) 4. 1 : 울뜨레아 4. 8 : 꾸리아
- 부활 판공 성사
 - 재의 수요일부터 성주간 전까지 받으시는 모든 고백성사는 올해 부활 판공 성사로 간주됩니다.
 - 고해성사는 2층 사무실에서 오전 8:30~8:50까지 합니다.
 - 지하성당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 청년 미사 5월 14일(토)부터 시작합니다.
 - 매월 둘째 토요일
 - 미사 시간: 오후 6시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 모임: 오후 4시 30분 아랫성당
- 청년 전례부원 모집
 - 문의 : 정 동주 유스토, 김 승현 마리아, 신부님
- 청년 레지오 'Zoom'
 - 매주 목요일 밤 9시
 - Meeting ID : 873 6206 6000
 - Passcode : 368464
- 미동북부 성령쇄신 2022년 고백성사를 통한 사순 1일 피정신청 받습니다.
 - 문의 : 김 영희 안나 347-665-6696
 - 일시 : 4월 2일(토)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 주최 :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KACCR-NE)
 - 참가비 : \$30 (점심, 저녁 제공)
- 신부님과 함께하는 성경 묵상반 모집
 - (시편반, 잠언 및 집회서반)
 - 문의 : 신부님
 - 선착순 8명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오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 ◎ 아멘.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 A

[단체모임 안내]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프란치스 룸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매 주일 8:30am~13: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둘째, 넷째 토요일 5:00pm	교육관 2E

[2022년 3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생명 윤리의 도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응답

생명 윤리의 새로운 도전에 맞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실천으로 언제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수호
하도록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원조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광고주를 찾습니다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정주 (소화데레사)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 이경희 (미카엘라) | |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615,1-3.11ㄴ-32)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의 복음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39항은 이 비유를 해석합니다. '옛것', 방탕하여 비참해진 삶에서, '새것'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아들의 삶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회개와 참회의 과정을 잘 묘사하시는데, 이 비유의 중심인물은 ‘자비로운 아버지’이다. 거짓 자유의 미혹, 아버지의 집을 떠남,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빠진 극도의 비참, 돼지를 칠 수밖에 없던 수치, 더 나아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던 주립, 재산을 탕진해 버린 데 대한 반성, 뉘우침과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을 고백하겠다는 결심, 집으로 돌아옴, 아버지의 너그러운 환영, 아버지의 기쁨 등, 이러한 것들이 회개하는 과정의 특징적인 모습들이다. 아름다운 옷과 가락지와 즐거운 잔치는 하느님과 교회라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의 생명인 깨끗하고 품위 있고 기쁨 가득한 새 생활의 상징들이다. 당신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를 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아버지의 끝없는 자비를 이렇게 소박하고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알려 주실 수 있었다.”

오늘의 제1독서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가나안에서 첫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 버렸다." 이렇게 시작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문턱에서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왔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옛것', 종살이의 수치와 광야에서의 방황이 끝나고, '새것',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면서 그 땅의 첫 소출로 만든 '누룩 없는 빵과 볶은 밀'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집', '고국'에 돌아온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의 제2독서 코린토2서는 '화해의 봉사직' 이야기입니다. 바오로도 말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는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오늘 제 2수련식을 하게 되는 예비신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집', '가톨릭교회'에 들어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합시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불편한 인생

인생을 살다보면 견디기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자신에게 버거운 일 혹은 정말로 하기 싫은 일, 불편한 사람들과의 만남 등 이런 상황과 마주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아의 힘이 약할 때 그 불편함은 가중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땐 '불편함'을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토마스 무어는 저서 「영혼의 돌봄」에서 “불편함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불편함 자체가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려는 영혼의 소리는 것이지요.

사람은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채우도록 부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부족한 채로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발견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이 어떤 인간적 감정으로부터도 초월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지의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설령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착각이거나 자폐적 상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역설적으로 자신이 절대로 거룩하지 않음을 깨닫는 삶인데 이런 깨달음은 불편함 안에서 얻어집니다. 즉, 거룩한 삶이란 거룩함과 세속성이 뒤섞인 상태란 것입니다.

기도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갖는 불편함 중에는 완전한 평화, 불편함이 없는 삶을 꿈꿔서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앙 강박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근하고 쉬지 못하도록 하는데서 오는 불편함입니다. 가톨릭 수도원의 영성은 불편함의 영성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며 불편함을 수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가톨릭 영성이란 것입니다. 그러하니 기도를 해도 자신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시궁창 같더라도, 자신을 몰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꼰대 유머입니다. 젊은 신부가 예쁘고 젊은 처녀들만 보면 마음이 흔들려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성소가 없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환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다 본당 신부에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알려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야단칠 줄 알았던 본당신부는 야단은커녕 꺾꺾 웃더니 "내 나이에도 아직 흔들리는데 자네 나이에는 더 하겠지" 하더랍니다.

그래도 고민이 풀리지 않은 젊은 신부가 재차 물었습니다. "여인을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때가 언제나 올까요?" 그러자 본당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흔이 넘은 신부님께 여쭙았는데 그분 말씀하시길 나이 아흔이 넘으니 그런 흔들림은 없는데, 우울증이 오더라고 하시던걸?"

홍성남 마태오 신부(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